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3월 27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색깔보리’ 품질 고급화 농가소득 높인다-9면(24.3.18.)	제주농업기술센터	한국영농 신문
○	제주키위 수출전문농가 키위 새 시장 공략-2면	과수연구과	한라일보
○	[기고] 감귤 전정가지 소각하지 말고 파쇄하자-14면(김승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뉴제주일보
○	[기고] 로컬 식재료의 매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맛을 만나다-14면(김윤정)	동부농업기술센터	뉴제주일보
○	주간농업농촌소식-5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농가 빚 ‘2배’ 늘었는데 소득 500만원 절감 상승-5면	-	제민일보

(한국영농신문: 2024년 3월 18일)

○ ‘색깔보리’ 품질 고급화 농가소득 높인다-9면

‘색깔보리’ 품질 고급화 농가소득 높인다

제주농기원, 용도별 보리품종
생산단지 조성·보급 확대 나서

제주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선희)가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능성 색깔보리 특산화와 품질 고급화를 통해 보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맥주보리는 비교적 낮은 소득으로 제주 도내 재배면적이 4년 사이 34% 감소했으며, 감소한 만큼 월동채소 재배면적이 늘어나며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기능성 색깔보리는 일반 보리보다 안토시아닌과 프로안토시아니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 항산화 효과가 있어 이를 활용해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판매하면 색깔보리 원곡으로 판매했을 때에 비해 4.3배, 맥주보리 원곡 대비 20배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국비 1억 원을 확보해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가공 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재배단지 10ha를 조성해 색깔보리를 생산하고, 가공을 위한 도정기와 분쇄기 등의 가공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기반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색 변화가 적은 보릿가루

와 색깔보리 가공제품을 개발해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과 연계하고 활성화해 나가며 재배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능성 보리 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월동채소 수급 조절은 물론 뛰어난 경관 효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농업기술센터 강성민 특화작목육성팀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능성 색깔보리 가공제품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업 정착에 역량을 집중시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3.18. 제주-가자**
한국영농신문 9

(한라일보: 2024년 3월 27일)

○ 제주키위 수출전문농가 키위 새 시장 공략-2면

제주키위 수출전문농가 키위 새 시장 공략

현재 수출량의 90%가 일본
한국키위수출(주)와 협력
대만 시장 수출 확대기로

제주도와 한국키위수출(주)가 제주 키위 수출전문농가를 육성, 신규 시장 공략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국내 육성 골드키위의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 제주산 키위 수출 확대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산 키위는 국제 우수 농산물 관리기준을 획득해 국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수출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수출량의 88.9%가 일본에

집중됐고 이어 대만 4.5%, 싱가포르 2.7%, 홍콩 2%, 그 외 국가 1.9% 순이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뤄진 제주 키위 수출물량과 금액은 2020년 142t·7억5200만원, 2021년 152t·8억4900만원, 2022년 146t·7억600만원, 2023년 162t·10억1000만원 등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최대 과일 소비국가인 대만과의 키위 품목 검역협상이 완료되며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한국키위수출과 제주산 국내 육성 골드키위의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이들은 공동연구사업의 목표를 ▷대만 수출 전문 10개 농가 육성 ▷수출용 키위 재배 관리 및 병해충 방제 지침서 제작·보급 ▷시장



제주도와 한국키위수출(주)는 제주산 키위의 신규 수출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라일보DB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한 신규 시장 진입 전략 마련 등으로 설정했다.

수출 대상 품종인 ‘스위트골드’는 2014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성한 당도 16~20브릭스의 고

당도 품종으로 제주지역 키위 재배면적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품종에 비해 당도가 높아 외국 바이어에게 호평받는 **3.27**다.

백남탁기 **한라일보 2m**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27일)

○ [기고] 감귤 전정가지 소각하지 말고 파쇄하자-14면

감귤 전정가지 소각하지 말고 파쇄하자

봄철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 간 한 해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67건으로 4004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특히 3월에는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25%에 달하는 141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임산자 실화 29%, 소각 22%, 담뱃불 9%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각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농지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로 번진 사례가 많다. 영농부산물 소각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불법이며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유발한다.

영농부산물이란 농산물 수확 후 발생하는 줄기와 뿌리 등의 잔재물로 과수 잔가지, 고춧대, 깻대, 콩대 등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감귤원 간벌 및 전정시기인 2~5월에 전정가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이 시기에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농경지 화재 발생이 매우 우려된다.

올해 농업기술원은 (새)한국농촌지도



김승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화팀장

자 제주시·서귀포시연합회와 협업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파쇄작업단이 농가에 찾아가 전정가지 파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농촌지도자 회원 18명이 파쇄작업단 6팀을 구성해 도내 45ha 134농가에 파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9일과 20일에는 각각 한국농촌지도자 제주시연합회, 서귀포시연합회의 작업단 발대식이 개최됐다. 발대식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을 금지하는 회원 결의대회를 가진 후 파쇄기 안전사용 교육과 안전 파쇄 시연이 이뤄졌으며 이후 읍면지회에서는 자발적인 3.27.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뉴제주일보 14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27일)

○ [기고] 로컬 식재료의 매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맛을 만나다-14면

로컬 식재료의 매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맛을 만나다

로컬푸드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그 지역의 기후, 토양 특성 등 환경에 따라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지며 지역의 농부들이 재배해 그 지역에 공급하는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말한다.

수확 후 빠른 시간 내 소비자에게 도달해 신선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또 장거리 운송을 하지 않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 환경 친화적이며 가공이 적고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어 건강에도 이롭다.

이렇듯 로컬 농산물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 보호,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제주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당근, 월동무, 콩, 양파, 감자는 그 풍부한 영양 가치와 다양한 활용 가능성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런 식재



김윤정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장

료들은 다양한 음식 조리에도 활용될 뿐 아니라 창의적인 조합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데에도 적합하며 건강한 식단과 함께 다채로운 맛을 선사한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동부지역 로컬 농산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소비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농촌융복합사업장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개발 및 실습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해 농가카페, 농가맛집 등 농장형 식문화공간에서 이용 가능한 메뉴를 배우고 보급하여 소비자들은 지역 농가의 품질 좋은 식재료와 로컬푸드를 경험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식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3.27.

뉴제주일보 14

(제주매일: 2024년 3월 27일)

○ 주간농업농촌소식-5면

주간농업농촌소식

주간농업농촌소식 2024-11호(2024.3.25.)

여건변화 대응 농업현장 중심 실용기술 개발·보급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단호박

- 3월 20일경부터 정식작업 시작
- 본엽 4~5매 시 정식. 정식 전 멀칭 및 터널용 폴대 설치
- 밑거름: 10a당 퇴비 1,500, 요소 37, 용성인비 75, 염화칼리 34

■ 구쪽파

- 비닐피복포장 위주 잣빛곰팡이병, 노균병 방제

■ 마늘

-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포장에서 흑색썩음균핵병, 잎집썩음병, 뿌리응애 발생. 방제 필요

■ 중·만생양파

- 동부지역 일부 노균병, 잎마름병 발생. 방제 필요
- 총채벌레, 나방 등 예찰 방제

■ 봄감자

- 동부지역 파종 완료. 서부지역 비닐 타공 중
- 서리 및 바람피해 시 요소 0.2%액 엽면시비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27.

제주매일 5

(제민일보: 2024년 3월 27일)

○ 농가 빚 ‘2배’ 늘었는데 소득 500만원 짊짊 상승-5면

농가 빚 ‘2배’ 늘었는데 소득 500만원 짊짊 상승

2022년 농가부채 9165만원
10년간 농업소득 538만원 ↑

제주지역에서 최근 10년간 농가부채가 농가당 4600만원씩,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기간 농업소득은 500만원 가량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농가 채산성이 낮게 나타나면서 농촌 고령화 상황속 신규 농업인 유입 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간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농가당 평균 4522만원에서 9165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전국평균치와 비교하면 2013년에는 전국평균 대비 1.65배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2.62배로 격차 역시 커졌다.

같은기간 농가소득은 4164만원에서 5824만원으로 39.9%(1660만원) 올랐다.

농업소득으로 살펴보면 1003만원에서 1541만원으로 53.6%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4.1%에서 26.5%로 소폭(2.4%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3.27.
제민일보 5

↑), 이전소득(908만원, 162.7% ↑) 등이 일제히 증가하면서다.

빚을 키우면서 투자를 늘렸지만, 결과적으로 농업소득보다는 부수입 증가분이 더 컸던 셈이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농가 채산성마저 낮게 나타나면서 농산물 가격 급등락 반복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가 경영불안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신규 농업인 유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가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 교역지수(2020년=100%)는 2022년 89.6%에서 지난해 90.3%로 소폭 상승했지만 최근 10년중 하위 3번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도내 농가에서는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농업투입재 지원 및 경영안전망 강화, 중·장년 농업인 지원, 청년농업인 연령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이 농민기본법, 필수농자재지원법,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안 등 ‘농민 3법’ 제정을 요구하고 제22대 총선 출마 후보들에게 농정공약 제안을 제출했다.

김수환 기자